



## 돌아 온 거포 최희섭 호랑이 타선 깨울까

허리 통증 재할 끝... 주말 시범경기 삼성전 합류  
 톱타자 이용규도 복귀... 안치홍 개막전 이상무



〈이용규〉

〈안치홍〉

준비에 들어갔다.  
 17일에도 최희섭과 함께 대전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용규는 "발목이 좋지 않아서 훈련을 조절했지만 지금은 공·수 훈련 모두 소화하고 있고, 타석에도 들어서는 등 시즌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치홍은 2011시즌 개막전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시즌이 끝난 후 어깨 연골 봉합 수술을 받았던 안치홍은 득한 재활로 예상보다 빠른 복귀가 잡혀지고 있다.

16일에는 함평에서 2군 선수단과 훈련 일정을 소화했다. 시범경기 출전은 불투명하지만 본인 스스로 '컨디션은 최상이다'고 밝힐 정도로 움직임은 좋다.

안치홍은 "수술 부위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훈련에 지장은 없다. 컨디션도 좋고 준비도 잘해 온 만큼 개막전 엔트리에 반드시 이름을 올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가벼운 어깨 통증으로 휴식을 취해왔던 '좌완 에이스' 양현종도 조만간 마운드에 오를 전망이다. 양현종은 지난 9일 무등경기장에서 진행된 SK와의 연습경기에서 등판한 뒤 어깨 통증을 호소, 정밀 검진을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9일에는 삼성과의 시범경기가 진행되는 대구로 이동해 선수단에 합류한다.

4번타자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주장 안장을 김상훈에게 반납한 만큼 다시 방망이를 드는 최희섭의 각오는 남다르다.

최희섭은 "컨디션이 100%는 아니지만 수비·타격 훈련 모두 소화하고 있고, 팀에서도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한화와의 경기에서 차분하게 몸 상태를 점검한 뒤 팀 전력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톱타자 이용규의 복귀도 가시화 되고 있다. 이용규는 골절부상을 당했던 오른발목이 좋지 않아 그동안 훈련 속도를 조절해왔지만, 15일 넥센 2군과의 연습경기에서 세 타석에 들어서며 본격적인 시즌



배우 이시영(왼쪽)이 16일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전국여자신인아마추어복싱선수권대회 48kg급에서 신소영에게 라이트 훅을 직중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 女 아마복싱 신데렐라 '배우 이시영'

신인 선수권 결승 진출... 순천청암고 성소미와 챔프대결

배우 이시영(29·홍수환스타복싱)이 제7회 전국여자신인아마추어 복싱선수권대회에서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시영은 16일 경북 안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48kg급 준결승전에서 신소영(양주백석고)을 판정승(13-7)으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5명이 출전한 이 체급에서 부전승으로 준결승에 오른 이시영은 초반부터 강하게 상대를 몰아붙여 점수를 쌓았고, 2라운드에서는 한 차례 다운까지 빼앗는 등 경기를 압도했다.

상대인 신소영이 고등학교생이라는 패기를 앞세웠다면 왼손잡이인 이시영은 정확하게 받아치면서 차곡차곡 점수를 올렸다. 2라운드 이후 체력이 약간 떨어지는 듯했지만, 안면 편지를 자주 성공시키면서 끝까지 투지를 발휘했다.

백승원 코치는 "이시영은 투지와 열정이 대단히 강하다"면서 "특히 상대 편지를 피해서 받아치는 왼손 스트레이트가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이시영은 이 대회를 앞두고 매일 아침 5~

6km씩 달리고 오후에 기술 훈련을 2시간씩 소화했다.

영화 '위험한 상견례'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시영은 이 영화 홍보활동을 하던 와중에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이시영은 지난해 여자 복싱선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단막극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돼 복싱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드라마 제작은 무산됐지만, 복싱에 재미를 붙인 이시영은 지난해 11월 사회인 복싱대회인 KBI 전국 생활체육 복싱대회 48kg급에도 출전해 우승했다.

이시영은 17일 성소미(순천청암고)와 결승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 KIA, LG 핵타선이 부러워

방망이 안터지고 마운드 흔들... 시범경기 0대 11 대패

KIA 마운드의 고공행진이 한풀 꺾였다. 잡에서 덜 깐 타선은 산발적인 안타에 그쳐 패배를 자초했다.

KIA 타이거즈가 1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3개의 홈런을 포함한 피안타 14개라는 멍때를 맞으며 0-11로 대패했다.

앞선 3차례의 시범경기에서 호투 릴레이를 이어오던 KIA 마운드가 LG의 불방망이 앞에서 기를 펴지 못했다.

좁게 형성된 스트라이크존에 고전하던 서재응이 4회 대량실점했다.

첫 타자 박경수에게 좌전 안타를 내준 서재응이 이병규에게 중월 투런포를 맞으며 2점을 내줬다. 박용택·정성훈·정의운의 연속 안타까지 이어지면서 서재응이 급격히 흔들렸다.

조인성의 희생플라이로 0-4이 됐고, 오지환의 투런포까지 나오면서 점수는 0-6까지

벌어졌다.

서재응이 4이닝 8피안타 6실점으로 물러난 뒤 박성호가 마운드를 넘겨받았다.

박성호는 삼자범퇴로 5회를 막았지만 6회 첫타자 김태완에게 좌측담장 넘어가는 솔로포로 일격을 당한 뒤 연속 안타를 맞으며 강판됐다. 신용운이 투입됐지만 이대형에게 2타점 3루타를 허용하는 등 불붙은 LG 방망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6회 5실점이 더해지면서 0-11이 됐다.

마운드 동반 난조속에 7회 등판한 광정철의 투구가 돌보였다. 광정철은 김태완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아웃카운트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며 시범경기 첫 등판을 소화했다.

타선의 부진은 계속됐다.

2회 김주형의 우전안타로 맞은 1사 1루에서 이현곤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선취점을 뽑지 못한 KIA는 2회 첫타자 신중길의 중전 안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이

번에는 이상우의 병살타가 터지면서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실패했다.

KIA는 봉중근이 선발로 나선 LG 마운드를 상대로 6개의 안타와 함께 2개의 볼넷을 골라냈지만 후속타 불발로 영패를 당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생활체육야구 주말 대회전

제1회 전남연합회배 생활체육야구대회가 19일 강진 베이스볼 파크에서 개최된다.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전남야구연합회(회장 이광재)가 주최·주관하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대회에 참가하는 400여명의 동호인과 임원은 평소 같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울트라 사이클 '랜도링' 아시나요?

75시간내 나홀로 1000km 주파  
 내달 1~23일 광주·전남·북서

비경쟁 장거리 사이클링 투어인 랜도링(Randonneur) 대회가 내달 광주와 전남·북, 경남 일원에서 펼쳐진다.

랜도링은 정해진 시간 내에 사이클을 타고 200km, 300km, 400km, 600km, 1000km, 1200km의 장거리를 혼자 힘으로 주파하는 스포츠로, 참가 선수를 랜도너스라고 부른다.

16일 코리아 랜도너스(Randonneurs)에 따르면 다음달 1~23일까지 계속될 대회에 광주·전남 사이클 동호회원 등 국내 선수 50명, 미국·독일·캐나다 등 8개국에서 온 20여명이 참가한다.

라이더는 절대 정해진 코스를 이탈해서는 안 되고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체크



포인트에서 도장이나 사인을 받는다. 라이더의 출발과 함께 타이머가 작동,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2~3일 정도가 소요되는 600km나 1000km의 경우 중간에 잠을 잘 수도 있다.

다음달 1일 200km 레이스(제한시간 13시간 30분)가 목포~진도~목포 구간에서 펼쳐지고, 300km레이스(20시간)는 3일 광주~고창~익산~정읍~광주에서 진행된다.

27시간 내 완주해야 하는 400km 레이

스는 9일 광주~해남~고흥도~김진~담양~광주 구간에서, 600km는 16일 광주~별교~여수~하동~광주 구간(제한시간 40시간)에서 있게 된다. 75시간 내에 주파해야 하는 1000km는 대회의 하이라이트로 23일 광주~목포~군산~광주 코스에서 열린다.

대회를 기획한 로타르 헨닝하우센(60·사진) 박사는 미국 국립보건의원 소속으로 전남대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다. 그는 "광주·전남 코스는 매혹적인 시골 풍경과 환상적인 해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그의 소개로 지난해 처음 랜도링 대회를 치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3년만의 3월 19일까지

# 대세일 30%

1. 세일후 절대 세일가격으로 판매치 않습니다.

2. 160만원 상당 이태리 친환경 라텍스 무상증정 (300만원 이상 침대에 한함 180×200×25cm 대형사이즈)

희정동 아울렛과 본점상품은 겹치지 않습니다.

클래식 소파 식탁 침대



ITALY

앤틱 식탁·좌탁 침대



ITALY

카우치 & 소파



ITALY

모든식탁과 좌탁은 상판 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 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가능 합니다. (한국독점수입)

| **홍스페이스 아울렛** | 서구 화정동 307-1 **화정역사거리** (메디피아 신축병원 옆 400평) | 본점 |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SPACE  
이태리가구 직수입 도소매  
SINCE 1990

(주)홍스페이스는 100% 이태리 친환경 앤틱가구, 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 소매 하고 있으며 직수입 ⇨ 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062-226-7567